

2007 7 월 호 제388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7월호

발행일 : 2007. 7.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연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홍정옥

비매품

주부교실

2007
통권 제388호 7

생각해봅시다	4	우리 것을 찬미하라/홍은희
의식조사	6	소비생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8	체력단련장의 거래환경
에너지절약 가이드	11	대기전력으로 새는 전기요금
고발사례	12	소비자의 소리/곽정자
소비자정보	14	법정계량단위, 왜 써야하나요?
소비자경보	16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장착 상술 피해 조심!
알아봅시다	18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소비자뉴스	20	인터넷 쇼핑할 땐 ‘구매안전서비스’ 꼭 확인하세요!
식품뉴스	22	의약품종합정보 제공 사이트 ‘이지드럭’ 개편
건강뉴스	24	서구식 식습관 가진 亞여성, 유방암 발병률 높아
에세이	26	젊은 며느리/김지연
음식이야기	28	항암효과 탁월한 건강지킴이 ‘마늘’
이달의 요리	30	얼음 동동 띄운 여름철 별미 ‘냉국’
생활정보	32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관련 정보 10가지
세금상식	34	상속세, 신고 후에도 꾸준히 관리된다
생활의 지혜	35	가열된 식품에서 발생되는 ‘퓨란’이란?
문학산책	36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여행정보	37	‘한여름 밤의 꿈’ 같은 등대 여행
견학소감	38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을 다녀와서/이금숙
지부소식	39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1	주부대학·대학원 방학 및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표지사진 : 전국주부교실 충남지도자대회(충남도지부, 07. 6. 28), 초고속인터넷 이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경북도지부, 07. 6. 15)〉



홍 은 희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우리 것을 찬미하라

-전통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준 창호문-

매일 허덕이느라 25년이 다 되어 가도록 우리 집 안을 제대로 가꾸지도 못했었다. 남들 다 하는 직장 생활을 나만 유난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건만, 이 집 역시 9년 전 이사하면서 겨우 방 두 개만 도배한 것으로 끝을 냈다.

변명을 하자면 굳이 못할 것은 없다. 공휴일도, 일요일도 없는 기사를 하느라 일 년이면 고작 열흘 안팎의 휴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휴(休)하는 심정으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보면 금세 지나갔다. 동요처럼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식으로 아침이면 눈뜨기가 무섭게 밥 한술 입에 걸치고 나가, 퇴근 후엔 취재원이나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다 늦은 밤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래서 살림을 맡아주신 친정어머니가 “철 바뀔다고 집안 치장하는 기사나 쓰지 마라!” 하고 핀잔 아닌 핀잔을 줄 때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곤 했었다.

그런 내게 뒤늦게 집안의 물결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맨 먼저 뚜껑도, 모양새도 제각각인 그릇들, 게다가 이따금 냉장고 보관용 그릇까지 버젓이 식탁까지 오르는 것에 짜증이 났다. 겨울용 테이블 매트가 사철 가리지 않고 8년째 자

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도 화가 치밀었다. 14년 전 10만원을 주고 산 거실탁자용 카펫은 낡다 못해 울이 풀려 들성들성 이 빠진 꼬락서니였다. 결혼 이후 세 번째 집인 이곳으로 이사 오며 껌질이 벗겨진 가죽 대신 황금색 천으로 옷을 갈아 입혔던 소파는 대낮에 보니 연한 미색으로 둔갑해 있었다. 하얗던 거실 등장은 본디 색은 오간데 없고 이제 진한 갈색이었다.

‘바꾸자! 바꿔버리자!’ 번개처럼 뇌리를 스친 생각은 이내 화두가 되었다. 여태 아무런 불평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집을 고쳐야겠다고 부산을 떠나는 나를 보고 식구들은 어리둥절했다. 말 없는 실내풍경이 새삼 신경을 거스른 것은 전직을 하여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까닭도 있겠고, 친정어머니 말씀처럼 ‘중년의 막바지에 접어든 나이’ 때문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나는 처음으로 글이 아닌 행동으로 ‘집안 꾸미기’를 실천하기로 했다.

당초 벽지나 바르고, 거실이나 재배치하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일단 손을 보기 시작하니 여기저기 눈에 거슬리는 곳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통에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거실에서

방으로 몇 번씩 살림살이를 옮겨놓느라 두 달 가까이 온 식구들이 과감치가 되었다. 그래도 대낮같이 밝아진 조명이며, 깔끔해진 방안들로 집안에 들어서면 기분이 저절로 상쾌해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안방의 창호문이다. 창문의 커튼을 떼어버리고 대신 이중으로 창호문을 설치했는데, 아침이면 푸근하게 찾아드는 햇살이 평화롭게 잠을 깨워 그렇게 감미로울 수 없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릴 무렵이면 창호문도 어둑어둑 밤기운을 전해줘 오늘의 일상이 마감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빛을 억지로 가로막아 버리는 커튼과는 사뭇 다르다. 고정식 유리창은 들창문으로 만들어 밖을 내다보고 싶을 때는 천정으로 들어 올리는데 창호문이 올라앉는 품새가 과히 장관이다. 그 뿐인가. 박쥐문양으로 만든 들창문의 걸개는 제 몫의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연스레 안방 천장을 장식하는 멋스러운 조각품(!)이 되었다.

전통 주거환경에서 실내를 단장했던 크고 작은 생활도구들이 양식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큰 오산이었다. 창호문 뿐만 아니었다. 전통 부엌 찬장은 입식 공간과도 잘 어울려 주방 장식장으로 손색이 없었다. 기다란 문갑은 베란다의 정취를 자아내는 데 그만이었다. 사랑방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사용하던 선비용 평상은 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미니 응접세트로 훌륭했다. 돌확에 수초를 띄우고 물고기를 기른다는지, 여물통에 꽃을 심어 실내장식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내친 김에 나도 아이디어를 짜내 경상의 모티브를 살려 입식 책상을 맞추었다. 소목장의 손을 거쳐 완성된 대형경상은 양식 공간을 당당하게 지배했다.

전통가구와 현대공간의 어울림에 놀란 나는 내심 소목장의 소득이 쓸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서 넋지시 전통공예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 보았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쓸쓸했다. 아파트가 주거양식의 대종이 된 이후, 전통가구들은 명맥을 잇기도 버겁다는 것이다.

우리의 난방구조는 여전히 온돌이지만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도시 가정들의 대부분이 이부자리를 침대로 바꾸었다. 이부자리와 베개를 보관하기에 넉넉했던 장롱도 덩달아 옷의 수납이 주목적인 불박이장으로 대체되었다. 실내로 들어온 입식 부엌이나 대청마루를 대신한 거실엔 화려한 이태리풍 가구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다. 불박이장이라도 전통가구의 느낌을 살릴 묘안이 없지 않고, 전통가구를 현대공간에 어울리게 변형하는 일도 어렵지 않으려만 ‘우리 것=구식’이라는 인식이 뿌리박혀 일반인들은 아예 이를 거들떠 보지조차 않는다는 것이다. 갈수록 일감이 줄어드는 통에 무형문화재들마저 수하에 전수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러다간 동남아인 무형문화재가 나 올지도 모를 일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우는 ‘살아있는 국보’이다. 어찌다 공방을 벗어나 국가 행사에 참여해야 할 때는 한 차에 동승시키지도 않는단다. 혹여 사고라도 나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생각에서이다. 국가의 대접도 융숭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민의 사랑도 대단해서 무형문화재들치고 평생 일감이 쌓여 있지 않은 이들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러니 전통기술과 생활문화가 세월을 건너 뛰어 살아 숨 쉴 수밖에 없다.

100년 된 ‘뭇’의 장인의 기술로 현대식 ‘화장술’을 상품화해 전통문화의 뿌리를 보존해가는 일본을 보며 나는 확신한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공예를 지켜갈 ‘생활문화의 수호천사’는 다른 아닌 우리 여성들이라는 것을. ■

소비자 78.3% ‘허위과장 광고’ 문제점 지적, 올바른 정보 제공 원해

시대변화에 따라 거래환경이 급변하면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상품과 용역을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정보 때문에 힘든 소비자를 위해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해마다 주제와 내용을 달리하여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개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4월 24일~6월 8일까지 소비자정보전시회 및 순회전시회장을 찾은 소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소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

- 78.3% ‘허위과장 광고 문제’로 지적

소비자들에게 소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을 두 가지 선택해 주도록 한 결과, 78.3%가 ‘허위 과장 광고’를 꼽았고, 39.9%는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19.2%는 ‘환경을 무시한 유해물질 생산과 유통’, 18.2%는 ‘가격문제’를 지적했다. <표 1>

소비자피해대처 방안

- 소비자 34.3% ‘귀찮아서 손해본다’, 소비자 단체 이용 만족도는 70.4%

소비자피해 발생시 37.8%가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23.1% ‘사업자에게 적극적

으로 처리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반면, 34.3%는 ‘귀찮아서 손해 본다’고 답했다.

소비자단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8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0.4%가 ‘매우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불만족하다’는 응답자가 21.3%, ‘상당 또는 해결은 잘 되었지만 불친절하다’는 응답자도 8.3%나 되었다.

‘소비자정보전시회’에 대한 견해

- 응답자 88.4% ‘소비생활에 도움 된다’

소비자정보전시회의 소비생활 기여정도에 대한 물음에 소비자정보전시회가 소비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거나 ‘도움 된다’는 응답자가 88.4%였다. 11.5%는 그저 그렇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으로 소비자정보전시회의 주제로 31.1%가 ‘식품 관련 정보’를, 27.3%는 ‘공산품 및 생활 필수품 정보’를 담아 주도록 요구했다. 10.5%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보’를, 10.1%는 ‘아파트 분양가 정보’를 원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방안 및 미래방안

- ‘불법 영업 행위 단속 강화’ 원하고, 소비자 단체가 주도적 역할 해주길 원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51.7%가 ‘불법 영업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했다. 28.3%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으며, 25.5%는 ‘소비자 스스로 의식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표 2>

응답자 22.7%는 ‘소비자단체의 기능 강화’를 원했으며, 구체적으로 바라는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63.3%나 되는 응답자가 ‘소비자정보전시회, 물가조사, 실태조사와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을, 46.9%는 ‘유해상품에 대한 경보조치’를 내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통환경 개선에 소비자 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희망했다.

결 론

소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으로 78.3% 응답자가 ‘허위 과장 광고’를 들었으며, 앞으로 소비자단체가 맡아 주었으면 하는 일로 63.3%가 ‘소비자 정보제공’을 원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내놓는 정보를

<표 1> 소비생활 문제 영역(복수 응답)

항 목	실수	백분율(%)
허위과장 광고	224	78.3
가격불만	52	18.2
무질서한 영업행위	45	15.7
불친절한 서비스	37	12.9
소비자 안전권 미확보	114	39.9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29	10.1
개인정보 유출	16	5.6
환경무시상품 생산	55	19.2
계	572	199.9

<표 2>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방안(복수 응답)

항 목	실수	백분율(%)
불법 영업행위자 엄중 처벌	148	51.7
소비자단체 기능강화	65	22.7
정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81	28.3
소비자 의식전환	73	25.5
다양한 교육기회제공	72	25.2
사업자 자발적 노력	45	15.7
계	484	169.1

소비자들이 무조건 믿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소비자단체가 담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 51.7%가 ‘불법 영업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범망을 피해 가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자들에 대한 응징 없이는 절대로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끝으로, 이번 의식조사를 통해 본회는 소비자 단체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전시회 개최 및 지속적인 교육 개발과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 설 것이다.

(자료제공 : 대전광역시지부)

‘환불기준’ 제시하는 헬스장 59.5% 불과, 불공정 거래조건 제시 여전해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해 대중체육시설 이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각 업체별 이용요금 및 시설·서비스 수준 차이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지난 4월 12일~5월 4일 서울 25개구 소재의 체력단련장(헬스장) 121곳을 대상으로 거래환경 실태를 점검해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음은 실태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헬스장 내의 정보제공 실태

- 환불기준 제공하는 곳 59.5%에 불과, ‘환불 불가’ 표시한 곳도 19.8%나 돼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에 의한 체육시설운영업에서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의 제공(표시 또는 게시) 실태는 90.9%로서 양호하였으나, “계약의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이용료의 환불기준”의 제공 실태는 59.5%로서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의 규정상 나타난 “약관의 교부 의무” 및 “사업자의 게시·설명 의무사항”의 이행도를 살펴보면 먼저 “약관”의 비치율은 62.0%에 불과하였다.

“이용증”의 비치율은 82.6%·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의 표시(게시)율은 87.6%, 이용자 안전수칙의 표시(게시)율은 82.6%로 양호하였으나,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의 표시(게시)율은 69.4%, 지도강사의 인적사항의 표시(게시)율은 74.4%로 역시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용자의 이용 연기신청에 대한 안내(표시 및 게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61.2%에 불과하였고, 임의로 정한 불공정사항으로서 “환불 불가”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19.8%로서 문제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업체별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내용 실태

- 사업자 정보 제공은 37.3% 불과, 68.0% 회원에게 불공정 거래조건 제시해

직접 수거한 7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회원정보의 표시란에 “성명”·“주

소”·“연락처” 등은 물론(100%) 일부 업체의 경우 회원의 직장 정보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특히, 개인의 중요정보인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38.7%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원관리의 중요 요소인 “건강관련 정보”의 기재란이 있는 경우는 30.7%에 불과했고, 사업자 자신에 대한 정보인 업체명(89.3%)과 전화번호(37.3%)를 모두 표시한 경우도 37.3%에 불과하였다.

또한 계약일의 표시율(94.7

%)에 비하여 계약(이용)기간의 표시율은 65.3%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신청 이용요금의 기재란은 53.3%·신청 프로그램명의 기재란은 33.3%에 불과하여 정확한 계약내용의 기재 실태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지 및 환불기준”의 표시율은 36.0%에 불과하였고, 사업장 현장에서 나타난 “환불 불가”의 표시는 “환불 절대 불가”, “원칙적으로 환불불가”와 같이 더욱 강화되어 표시된 경우가 68.0%에 달하여 계약단계에서부터 불공정 거래조건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계약의 해지 및 환불기준”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기준이나 표준약관상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기 보다는

〈표 1〉 계약서 기재사항별 표시 실태

기재사항	표시(%)	미표시(%)	계
업체명	67(89.3)	8(10.7)	75(100.0)
업체 전화번호	28(37.3)	47(62.7)	“
업체(이름, 전화번호모두표시)	28(37.3)	47(62.7)	“
회원정보	75(100.0)	0	“
회원 주민등록번호	29(38.7)	46(61.3)	“
회원건강정보	23(30.7)	52(69.3)	“
가격(요금)	40(53.3)	35(46.7)	“
계약일	71(94.7)	4(5.3)	“
계약(이용) 기간	49(65.3)	26(34.7)	“
신청 프로그램명	25(33.3)	50(66.7)	“
계약 해지시 환불기준	28(37.3)	47(62.7)	“
약관	28(37.3)	47(62.7)	“
환불 불가 표시	51(68.0)	24(32.0)	“
과다 위약금 표시	13(48.1)	62(82.7)	“
연기 가능 표시	33(44.0)	42(56.0)	“
소지품 보관 안내	27(36.0)	48(64.0)	“
사물함관리규정	37(49.3)	38(50.7)	“
안전관련 주의사항	32(42.7)	43(57.3)	“

과다한 위약금 공제 요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17.3%로 나타났고, 약관의 표시율(37.3%)이나 연기가능의 표시율(44.0%)·안전관리 주의사항의 표시율(42.7%)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으며, 소지품보관상의 유의사항(70.7%)의 표시도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수거된 75부의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상에 나타난 각 기재사항 별 표시실태를 정리하면 위의 〈표 1〉과 같다.

업체별 광고지 또는 안내장 내용 실태

- 수거된 홍보지 37부에서 62.1% 부당성 광고로 지적돼

직접 수거한 66개 헬스장의 홍보지(광고지

또는 안내장 등)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고시하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36.4%로 나타났다.

즉, 업체의 시설규모나 서비스 및 강사진의 수준을 광고하는 표현에 있어서 “국내 최고” “최고급” “최첨단” “강북 최대규모” “강동 최고 시설” “세계최초” “세계 최정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불공정 사항의 표시로서 “할인된 프로그램은 환불불가”, “신용카드결제 접수자가 계약 해지시 카드수수료 4%공제”,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음”, “1개월 등록시 환불불가”, “어떠한 종류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의 표현을 한 경우가 7.6%였다.

사업자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6.1%로 나타난바, “서울대학교 스포츠산업 연구센터와 산학 협동을 체결한 종합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기업”, “미국LA에 클럽을 연내 오픈할 계획”, “연세대학 헬스 휘트니스 지정 실습교육장”, “KT우수지정업체” 등의 표현이 있었다.

그 외 “5만원 상당의 사은품 제공”, “선착순 마감”, “마감임박” 등과 정확하지 못한 거래조건에 대한 표현이 3.0%, “골다공증 예방”, “비만·심장·폐 기능 강화 및 디스크 예방” 등의 특수한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를 주장하는 내용이 3.0%, 사용자의 경험담을 표시한 경우가 1.5%, 기타 지나친 영어의 사용과 작은 크기의 글

씨로 인해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각각 1.5%씩 발견된 바, 총 66부의 홍보지 중 37부에서 총 40회(62.1%, 표 2)의 부당성 광고가 지적되었다.

〈표 2〉 홍보지(안내장)의 광고 내용

내 용	횟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24(36.4)
불공정내용의 기재	6(9.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4(6.1)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2(3.0)
특수한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 주장	2(3.0)
사용자경험 멘트	1(1.5)
영어사용 과다(60)	1(1.5)
지나치게 작은 글자 크기	1(1.5)

결론

서울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 121곳의 거래 환경 실태조사 결과 다음 사항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중요정보의 제공율이 부족하고 불공정 사항의 표시율이 높다.

둘째, 계약의 정확성이 부족하다.

셋째, 부당한 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서비스 내용의 수준이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

다섯째, 광고에서의 배타성을 띤 과장 및 오인 우려가 있는 모호한 내용, 불공정 사항의 표시가 많다.

〈최명렬 / 본회 소비자보호국장〉

에너지절약 가이드



대기전력으로 새는 전기요금

생활 속에서 낭비되는 에너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다. 기술개발과 계몽운동으로 에너지효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새어 나가고 있는 에너지는 상당히 많다. 대기전력을 줄여 에너지절약 효과를 높이자.

■ 대기전력이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소비되는 전력으로서 리모콘 신호대기, 타이머 또는 모니터 표시 등과 같이 기기 본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기흡혈귀(Power Vampire)’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 대기전력이 정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나요?

현재 대기전력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는 한 가구당 평균 306kWh, 전기요금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 대기전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만 해도 1년에 한 달은 전기를 공짜로 쓸 수 있다고 한다.

지금도 전국 가정에 보급된 전자제품에서 전력이 ‘소리 없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4,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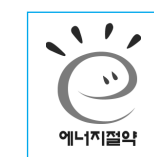
구분	구분	대기전력(W)
1	TV	4.33W
2	비디오	5.45W
3	오디오	9.121W
4	DVD플레이어	12.20W
5	전자레인지	2.77W
6	카세트라디오	1.11W
7	유무선전화기	2.15W
8	셋톱박스	7.85W
9	휴대전화충전기(2대)	1.72W(0.86×2대)
10	컴퓨터	3.26W
11	모니터	2.53W
12	프린트	3.07W
13	비디오폰	1.23W
14	세탁기	1.90W
15	모뎀	6.43W
16	비데	3.39W

GWh, 금액으로는 5천억원이나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

특히, 생활가전이 고급화·대형화되고, 유비쿼터스 등 통신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대기전력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력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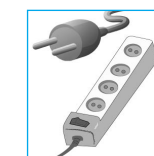
■ 대기전력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 에너지절약마크가 붙은 제품을 사용하세요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제품에는 에너지절약 마크가 붙어 있다.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 플러그를 뽑거나 절전탭을 사용하세요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지만, 실제로 번거롭고 불편하여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편하게 똑딱이 스위치 한번 작동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절전탭을 구입해 사용하면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다. 〈내용참조 : 에너지관리공단〉

소비자의 소리



허위정보 제공으로 계약한 콘도 멤버십카드 철회 요청

내용 김학영(서울시 구로구)씨는 2007년 5월 23일 (주)HK 콘도사의 영업사원이 본인의 회사를 방문해 회원 가입시 주중 1일 콘도 대여비 49,000원, 주말 56,000원으로 저렴한 비용 및 조건이 괜찮다고 홍보해 898,000원에 콘도 계약을 했다.

계약 이후 콘도 이용 안내책자를 보니 콘도 및 펜션 이용금액이 장소에 따라 제각기 다르고 성수기 때에는 주말 금액에 2배~3배 정도를 내야한다는 등 영업사원의 설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입실 제한도 없다고 했지만, 책자에는 기본 인원이 4인이고, 추가인원 1인당 1만원 추가 등 영원사원이 콘도 관련 주요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며 7월 13일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처리 계약 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고지의무를 잘못된 영업사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계약 체결시 선택의 혼선을 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다하여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이므로 청약철회요청이 가능함을 알리고 내용 증명 우편으로 계약서내용, 약관내용과 실지 제공

된 정보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해 청약철회 사유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7월16일 발송했다.

이후 해당회사로부터 해약 합의와 동시 카드도 철회하기로 약속 받았다.

방문판매원 건강식품강매, 판매처 해약요구 거절해

내용 김수진(충남 공주시)씨는 2007년 7월 16일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여자가 집을 방문해 본인은 사주를 봐준다고 소비자에게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 뒤 엠엑스 2병, 배아효소 2병, 그린 야채 칼슘 2병을 내놓으면서 구매할 것으로 강요했다. 소비자 말도 듣기 전에 각각 1병씩을 개봉한 후, 계약금 1만원만 납부하고, 117만원 중 나머지는 10개월 할부로 갚으라고 해 얼떨결에 충동구매 계약을 했다.

영업사원이 돌아간 후 1시간도 채 되기 전 계약 해지를 전화로 요청하려 했으나 연결이 안되어 판매처인 (주)동산월드몰산으로 전화를 하니 영업사원과 처리하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해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영업사원은 휴대전화 받지 않고, 판매회사는 아직 영업사원과 통화를 못해 처리할 수 없다고 계속 책임을 회피해 방문판매법 제7조 2항에

의거해 청약철회 회권 행사가 가능함을 알렸고,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영업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을 손상시켰기에 내용증명과 함께 상품반품 및 해약처리를 요구해 처리했다.

내비게이션 잦은 하자 발생으로 환불 약속 후 이행치 않아

내용 김국빈(경북 구미시)씨는 2006년 3월 26일 친지로부터 아이스레이션에서 제작한 내비게이션 V43을 65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내 화면이 꺼지는 하자로 인해 제품 교환을 3회 받았으나 동일하자가 또 발생하여 2007년 1월 30일경 환불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이스레이션 A/S센터장이 한 번 더 교환 받아서 사용하고, 하자가 재발송시 환불해 주겠다고 권유해 교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13일 하자가 재발해 환불을 요구하니 자기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고객센터 센터실장은 피해자의 친지인 제3자에게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중고 제품으로 간주하여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처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품목별 보상규정을 적용해 구입가 환불처리가 타당함을 주장하여 65만원 전액 환불 처리기로 합의하였다.

정수기 렌탈 계약후,부당 하게 자동 이체된 금액 환불 요청

내용 임기창(대전시 서구 월평동)씨는 2년 전 웅진코웨이정수기와 렌탈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6년 5월부터 코디가 방문하지 않아 필터 교환을 받지 못 하였다. 렌탈 이용료는 소비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2006년 9월까지 결제되었고 정수기를 반납하려해도 방문을 하지 않아 2006년 10월부터 대금지불을 하지 않았더니 현재 직권 해지된 상태이다. 더불어 웅진코웨이 채권팀

에서는 미납 요금과 위약금 30여 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자동 이체된 금액을 환불 받고 싶다고 했다.

처리 사실 조회 결과, 소비자가 상당기간 집을 비우거나 코디의 방문을 거부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돼 웅진코웨이정수기 측에 증제한 결과, 2006년 5월 이후 자동이체된 금액 14만원 중 10만원을 환급 받고,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잘못된 표시광고 보고 구입한 상품, 반품 요구하니 배송료 부과

내용 이혜숙(충북 충주시)씨는 2007년 5월 15일 인터넷으로 G마켓 유아몰에서 부비참사랑기저귀를 '제조사 유한킴벌리, 배송비 무료, 판매자 유아몰'이란 광고를 보고 240개에 49,050원에 구입하였다. 제품을 받아보니 제조사가 수안산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허위광고에 속았다는 마음에 반품을 요구하니 반품료 6,000원을 부과한다고 해 부담함을 제기했다.

처리 관련 광고를 보니 상품기본정보란에 '제조사/원산지 : 유한 킴벌리' 라고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의 말과 일치했다. 다만 화면 하단 부분에 교환시 왕복택배비 고객 부담이라고 첨부되어 있었고, 또 아주 작은 글씨로 부비 참사랑기저귀 제조사는 수안산업이라고 표시되었다.

그러나 화면 메인 광고를 '유한킴벌리' 라고 표시 광고한 행위는 분명히 소비자들의 선택을 혼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유한 킴벌리 서비스지원팀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제조사에는 메인광고로 유한킴벌리를 사용한 것에 대한 허위광고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케 했으며 소비자에게 배송료를 공제하지 않고 반품 및 전액 환불 처리케 했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법정계량단위, 왜 써야하나요?

7월부터 ‘평’과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쓰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지만,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법정계량단위에 대해 알아본다.

◆ 법정계량단위란 무엇인가요?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에 의해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 즉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 : SI)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했고, 전 세계적으로 미터법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뿐이다.

※ 국제단위계 : 국제적으로 확립된 길이, 무게, 부피 등에 대한 단위체계로 “m(미터; 길이), kg(킬로그램; 질량), s(초; 시간), K(켈빈; 온도), cd(칸델라; 광도), A(암페어; 전류), mol(몰; 물질량)” 등 7개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 비법정계량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모든 단위를 말하며, “평, 돈, 근, 인치, 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이 현대화된 것)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

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다.

◆ 왜 “평”과 “돈”과 같은 전통단위를 버리고, 법정계량 단위(미터법)를 써야 하나요?

첫째, 평과 돈은 우리의 전통 단위가 아니다.

“평”은 일본군이 국토침탈과정에서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단위이며, “돈”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귀금속판매업을 독점하면서 도입된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위이다. 이러한 단위가 전통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

현재 평과 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보니, m자나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한 값은 다시 환산하는 불편이 있다. 국내에서는 연간 270조 원의 거래가 계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1%의 계량오차만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약 2조 7천억원의 부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셋째, 국제무역이 원활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간다.

무역이나 국제 거래시 계량단위가 통일되지 않으며, 다시 계량하고 다시 포장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단위계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을 가능하게 한다.

◆ 왜 지금 단위 전환을 추진해야 하나요?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는

어제 오늘의 갑작스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4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단위 전환을 미룬다면 우리 다음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 침탈과정에서 강제로 도입된 부정확한 계량단위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 비(非)법정계량단위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바와 같이 1999년 미국 화성탐사선 폭발사고, 2001년 국내 K항공사의 화물기 추락사고가 이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평과 돈이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1〉 2001. 6월 국내 K 항공사의 화물기 추락 : K항공사의 화물기가 중국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으로는 부조종사가 중국의 고도단위는 미터인데 피트로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무리하게 하강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길이	• 미터(m) • 센티미터(cm) • 킬로미터(km)	• 자(尺), 마, 리(里) • 피트, 인치 • 마일, 야드	1 자 ≒ 30.303 cm 1 피트 = 0.304 8 m 1 인치 = 25.4 mm 1 마일 = 1,609 344 m 1 야드 = 0.914 4 m
넓이	• 제곱미터(m ²) • 제곱킬로미터(km ²) • 헥타아르(ha)	• 평(坪), 마지기 • 정보 및 단보 • 에이커	1 평 ≒ 3.3058 m ² 1 정보 = 9917 m ² ≒ 0.009 km ² 1 에이커 = 4046 m ² ≒ 0.004 km ²
부피	• 세제곱미터(m ³) • 세제곱센티미터(cm ³) • 리터(L 또는 l)	• 홑, 되, 말 • 석(석), 가마 • 갈론	1 되 = 1.8 L = 1803.9 cm ³ 1 말 = 18 L = 18 039 cm ³ 1 갈론 = 3.785 412 L
무게	• 그램(g) • 킬로그램(kg) • 톤(t)	• 근(斤), 관(貫) • 파운드, 온스 • 돈, 냥	1 근 = 600 g = 0.6 kg 1 관 = 3 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사례2〉 “평” 사용의 폐해 : 85 m²인 아파트는 평으로 환산하면 25.7평인데 부동산거래에서는 30평, 32평, 35평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비스면적이 다르다고 하지만, 사는 면적은 똑같은데 평으로 따져 엄청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언제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모든 비법정계량단위가 단속되나요?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지만, 7월 한 달간은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한 후 단속할 방침이다. 금번에는 가장 많은 불공정 상거래를 일으키는 “평과 돈” 단위만 단속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상거래 활동이나 계량증명, 광고에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였을 과태료 5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할 수 있다. 다만,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적으면 25만원, 많으면 75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용참조: 산업자원부)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장착 상술 피해 조심!

올 초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이름조차 생소한 ‘차량용 블랙박스’가 2008년부터 차량·장착이 의무화 되는데 특별 홍보기간에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제휴카드사의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등 허위 과장된 상술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공짜나 무료로 고가의·기기를 달아주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카오디오, 연료절감기, 네비게이션에 이어 신종 상품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달아준다는 상술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는 사실 무근

먼저, 소비자가 알아두어 할 사항은 현재 모협회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의무 장착을 위한 표준화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했을 뿐 법제화된 사실이 없다.

또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재 제품의 품질시험기준이 없는 제품으로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된다는 것은 허위 과장된 상술에 불과할 뿐이다.

피해사례

〈사례1〉 박○○씨는 2007. 4. 11. 오전○○ 영업사원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특별홍보기간인데 제품을 공짜로 달아줄테니 사용하면서 주위사람에게 홍보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방문을 허락했다. 방문사원 2명중 1명은 기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1명은 블랙박스는 교통사고가 나면 기록을 해독해 과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준다며 제품을 광고 했고, 설치가 끝날 무렵 갑자기 “기기를 공짜로 주면 안 된다며 기기값 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하여 약속과 달라 이의제기하자 한번 설치된 기기는 탈착되지 않는다고 하여 792,000원을 신용카드 할부결제하고 통화권 칩을 받았다.

나중해야 잘못된 거래를 깨닫고 철회를 요구하자 처리를 지연하던 중 대금청구서에는 명함의 상호와 다른 오토○○로 되어 있었다.

〈사례2〉 고○○씨는 2007. 6. 8. 피○○ 영업사원이 자동차에 적힌 휴대폰번호를 보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전화를 걸어 와 만났다.

여러 명이 왔는데 1명이 기기를 장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제품을 설명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는데 특별 홍보기간중에 기기를 설치하면 기기값 만큼 무료 통화권을 주거나, ○○카드와 제휴가 되어 월 50만원상당의 체크카드 사용시 월7만원을 입금 해주겠다고 했다. 무료통화권을 받았는데 사용이 불편하고 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달리 대금청구서의 가맹점은 명성○○○○로 되어 있어, 6. 20~6. 21일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카드사에서는 청약철회를 약속했으나 판매처에서는 기기를 탈착해 가지 않고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 명일 경우,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하게 되면 탈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

2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 사항에 적여둬야 한다.

차량에 장착하는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3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 등에 상담해야 한다.

4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기의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 발생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5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판매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 카드 가맹점이 부도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이상 2개월이상 할부거래 계약에 적용된다.
- 또,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할부금액에만 해당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여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내용출처 : 한국소비자원〉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세제·금융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도선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도 마찬가지다. 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포상금이 주어진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 시행

고령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중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공시가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총 3억원(월지급금 총액) 이내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에너지

●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특별안전점검제도를 도입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주거용 전기시설을 대상으로 거주자가 전기사용의 고충을 신고(☎1588-7500)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4시간 긴급 출동하여 전기사용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했다.

● 통신 결합판매 제도개선으로 요금인하 기회 확대

KT(유선), SK텔레콤(무선) 같은 지배적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묶은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허용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대인터넷(WiBro)과 화상전화(HSPDA) 등 신규 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상품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요금도 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 본인부담제 시행 및 선택병원제 시행

지금까지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 진료시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와 CT, PET는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6000원이 지급된다.

한편,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다만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이 없다.

●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휴직으로 인하여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했다.

문화 및 환경

●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영화발전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하여 입장권가액(요금표상의 실제 입장권 금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 토양오염 방지위한 '클린주유소' 지정제도 추진

주유소의 지하매설저장탱크 및 배관 등으로 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이 강화된 '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시설설치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한편, 설치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도 면제해준다.

행정·법무·국방·병무

●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차지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대상이다.

●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농림·해양

●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를 개정하여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

종전에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제조일과 유통기한 등 날짜정보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이스크림에 제조일을 의무 표시하도록 개정되었다.

인터넷 쇼핑할 땐 '구매안전서비스' 꼭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9월 1일부터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살 때, 초기화면 등에서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사기성 거래를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때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일부 은행이나 농협, 서울보증보험, 결제대행사 등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 사업자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물의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내용은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 때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사항 △통신판매업자가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등이다.

유사석유제품 쓰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

산업자원부는 1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 운수회사 등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유류시설을 갖춘 운수회사나 운전학원 등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쓰면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들 시설에는 50%의 가중치가 부과될 수 있어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산자부는 TV·라디오 등에 캠페인 광고를 내는 등 홍보기간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 휘발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외국서 산 '짜퉁' 제품 2개까지만 반입 허용

관세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6일부터 8월 말까지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400달러를 초과하는 캠코더와 노트북 컴퓨터는 출국 때 세관에 신고해야 귀국할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국내의 공항면세점에서 내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지만 구매한 상품을 입국할 때 다시 갖고 들어올 경우 면세범위는 400달러로 제한된다. 면세점에서 2000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을 사서 국내에 다시 갖고 들어오면 1600달러에 대해서는 약 28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외국에서 '짜퉁'(모조) 제품을 샀다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인정될 때만 품목당 1개, 전체로는 2개까지만 갖고 들어올 수 있다.

관세청은 "호주는 김치, 뉴질랜드는 골프클럽을 해당국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싱가포르를 겸을 반입할 수 없는 등 외국 입국

때의 통관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 세관의 여행자 통관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조하면 된다.

LCD 모니터 관련 소비자 불만 증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TV와 컴퓨터, 노트북 등의 LCD 모니터의 불량화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등 이와 관련된 불만이 모두 280건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9.8% 증가했다고 밝혔다.

LCD 모니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전체의 38%를 차지한 노트북 컴퓨터였으며 컴퓨터 모니터와 디지털 카메라가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불량화소가 있을 경우 업체들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기준이 제각기 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에 불량화소 기준을 통일할 것을 권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업체들이 불량화소 개수와 LCD 원산지 등의 정보를 제품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산 불량제품의 안전 불감증 '공포' 수준

뉴스위크 최신호(16일자)는 중국산 감기약, 치약, 양식 수산물, 애완동물 사료, 장난감 등에 독성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중국산 제품의 유해성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중국이 어떤 물건이든 신속하고 값싸게 만들어내는 주요 수출국으로 급성장한 것에 놀랐지만, 최근 잇따르는 사건들은 제대로 된 안전 기준조차도 갖추지 못한 제도의 혼란상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의 공권력이 무력화됐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이는 수십년 전 한국과 일본이 겪었던 성장통과 유사하다"면서도 "중국산 제품은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최소한 믿을 만한 상표로 개선시키지 않으면 전 세계 소비자들은 위험해질 것이며, 중국의 수출주도형 경제 기

적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중고부품 2/3 섞어 쓰고 있어

부산소비자연맹, 부산YMCA 등 4개 시민단체가 부산 지역 8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100% 신품을 쓴다'는 업체는 35.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46.4%는 '80~99% 신품으로 쓴다', 10.2%는 '60~79% 신품으로 쓴다', 8%는 '절반만 신품을 사용한 다'고 응답함으로써, 부산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의 3분의 1만이 차를 수리할 때 새 부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고 부품을 섞어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사대상 업체의 3.7%가 자격증을 가진 정비사가 한 명도 없어 행정처분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비자단체들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체에 차를 맡길 때 중고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 견적서를 꼭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의약품종합정보 제공 사이트 '이지드럭'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의약품 종합정보 제공 사이트 '이지드럭(ezdrug.kfda.go.kr)' 새롭게 단장해 개설했다.

소비자는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이지드럭에 접속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보관방법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사이트 내 '정보마당' 메뉴에서 '의약품등정보'에 들어가 약 이름만 검색하면 된다.

식약청은 "보험정보의 경우 식약청의 관리대상정보는 아니지만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협력 작업을 통해 현재 심평원 보험급여목록 1만6687품목과 식약청 개목허가정보를 이지드럭에서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낱알식별표시 정보, 보험정보 등 의약품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레, 노인성 치매 치료에 효과

카레에 많이 함유돼서 염증 완화와 항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커큐민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의 밀란 피알라 박사 연구팀은 카레의 주성분인 쿠르쿠민 중에서도 가장 활성도가 높은 비스디메톡시쿠르쿠민이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치매의 특징적 증상인 뇌에 축적되는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게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카레의 양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는 알 수 없지만 비스디메톡시쿠르쿠민을 주사로 투여하면 어렵지 않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유, 당뇨 및 심장 질환에 효과

우유를 정기적으로 마시면 당뇨나 심장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영국 남성

2400명을 대상으로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 매일 0.5 l의 우유를 마실 경우 심장병과 심장마비, 제2형 당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심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의하면 우유를 하루 0.5 l나 그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은 62%나 줄어들었고, 치즈나 요구르트 등 낙농제품을 섭취했을 경우는 56%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인슐린 저항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은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 신체 지방, 혈압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일과 생선 섭취 적은 10대, 폐기능 약해

과일과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10대의 경우 폐기능 약화, 천식, 기침 등 호흡기 질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미국 연구팀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 연구팀은 미국과 캐나다의 12학년(18세) 학생 2112명을 조사한 결과

과일에 포함된 비타민 C의 섭취가 적은 학생일수록 같은 나이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폐기능이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채소와 견과류에 포함된 비타민 E의 섭취가 충분치 못한 학생들에게서 폐질환의 일종인 천식 발병 빈도가 높았다.

의학 저널 '체스트'(Chest)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10대들의 보편적인 식습관은 매우 불량해 폐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비타민 보충제를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학생도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과일을 적게 먹고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지방산의 섭취가 적은 학생일수록 천식과 호흡 관련 질환 발병이 높았다.

오메가-3 지방산은 소량 만으로도 탁월한 폐 보호 기능을 발휘했으나 오메가-3의 가장 큰 공급원인 생선은 1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으로 꼽혔다.

연구팀은 "10대들이 균형된 식단을 통해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 보충제, 비타민 D가 첨가된 오렌지 등을

통해 부족한 양을 보충해 줄 경우 건강한 폐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기농 식품, 비료재배 식품보다 영양소 더 많아

유기농 채소나 과일은 화학비료로 재배한 것보다 영양소의 함량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은 '농업-식품화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유기농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를 거의 2배나 더 함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연구팀의 미첼 박사는 지난 94년부터 10년간 유기농 토마토와 일반 토마토를 말린 샘플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으며, 플라보노이드는 토양 속에 질소가 모자랄 때 만들어지는 방어메커니즘인데 질소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아가미·내장부위 '다이옥신류' 잔류 많아

최근 언론에 공개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수산물 35종의 다이옥신류 오염 수치가 높게 나와 해양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갈치 1g 당 4.625pg, 다랑어(참치) 4.214pg, 갯장어 4.130pg 등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pg는 1조분의 1g을 뜻한다. 간이나 내장에 더 많은 다이옥신류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일부 환경단체 등은 생선 알이나 내장을 넣고 끓인 알탕 등 국물 요리를 가급적 피하라고 조언하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 일반 성인에 비해 수산물 섭취빈도를 줄이고 불가피할 경우 근육 부위만 조금 먹되 중금속 수은의 농도가 높은 참치류와 고래류는 섭취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식 식습관 가진 췌장염, 유방암 발병률 높아

중국 연구팀과 함께 미국의 암센터 연구팀은 육류와 달콤한 음식을 위주로 한 서구식 식단을 즐기는 폐경기 아시아 여성의 경우, 콩과 야채를 즐겨 먹는 전통식 식습관을 가진 또래의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 확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학전문지 '암 역학-생물표지-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and Prevention)'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상하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5~64세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들 절반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이들 여성의 식습관을 상세히 조사해 이들을 소고기, 새우, 생선, 캔디, 디저트, 빵, 우유 등을 즐기는 '고기-설탕' 그룹과 두부, 채소, 나물, 콩, 생선, 두유를 즐겨 먹는 '채소-콩' 그룹으로 분류해 이 두 그룹간 유방암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고기-설탕' 그룹에 속한 폐경기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채

소-콩' 그룹의 또래 여성에 비해 크게 높았다. 특히 에스트로겐 호르몬으로 인해 야기되는 유방암의 경우 발병률은 60% 가까이 높았다.

이번 연구는 서구식 식단과 비만이 함께 작용해 유방암이 높아질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발암률을 좌우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더욱 확고히 해줬다.

비만치료약물 무분별 사용 맨 심장병 등 부작용 초래

의약품 안전당국이 비만치료 약물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은 식약청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소비자를 위한 식약생활정보' 2007년 여름호에 기고한 '향정 식욕억제제 사용시 주의사항'이란 글에서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욕억제제의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당국은 비만치료제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영양제와는 완전히 다른데, 그 이유는 '부작용' 때문

이라고 말하며, 이 약들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대상 환자와 복용기간 등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약들은 통상 4주간 먹은 뒤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며, 특히 살을 빼려는 욕심에 높은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는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 수면 뇌파에 변화가 생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무엇보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만치료에서 약물요법은 식사요법이나 운동을 대신할 수 없으며, 약물치료는 반드시 식사와 운동, 행동 치료와 함께 '보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눈병 감염 우려, 콘택트렌즈 끼고 수영하지 마세요!

수영장에서 안경을 끼고 수영할 수 없다보니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쓰거나 평소에 끼는 콘택트렌즈를 그대로 착용한 채 수영

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도수가 있는 물안경은 자신의 눈에 정확히 맞출 수 없을 뿐더러 안경과 눈 사이의 거리가 달라져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콘택트렌즈를 끼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콘택트렌즈를 낀 채 수영하는 것은 눈 건강에 대단히 위험하다. 렌즈를 끼지 않고 수영을 해도 각종 눈병에 감염되기 쉬운데, 렌즈를 끼고 있으면 세균들이 눈물에 의해 씻겨 내려가기 보다는 렌즈와 눈 사이에 오래 머물면서 각종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렌즈를 끼고 수영해야 한다면 일회용 렌즈를 착용하되 수영 중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수영을 마친 후에는 바로 렌즈를 빼서 버리고, 눈에 조금만 이상이 느껴져도 바로 안과를 찾는 것이 좋다.

허리둘레 줄이면 당뇨병 위험 감소

프랑스 연구팀의 연구결과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 성공한 사람들에서 당뇨병과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 동안 허리둘레가 3인치 늘어난 사람에서 당뇨병과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의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아졌고, 이에 비해 허리둘레가 1인치 이상 감소한 여성들의 경우 동일하게 유지된 여성들에 비해 이 같은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관리학저널'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서 또한 이 같이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것이 연구 시작 당시 대사증후군 증상을 가졌던 여성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사증후군을 가졌으나 허리둘레가 변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1인치 이상 허리둘레가 줄어든 여성들의 경우 연구 종료 시점에서 이 같은 대사증후군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심장질환 발병 위험에 중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체질량지수상 정상 체중이나 허리둘레가 큰 사람의 경우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임신 중 독감, 아기 정신분열증 가능성 7배 높아

엄마가 임신 중에 독감에 걸리면 아기가 태어나서 정신분열증에 걸릴 가능성이 7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팀은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 신경과학 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독감 바이러스가 태아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연구팀은 엄마가 임신 중반기에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아기가 나중에 정신 분열증에 걸릴 가능성이 7배나 높아지고 자폐증 가능성 역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을 이끌었던 신경과학자 폴 패터슨 교수는 엄마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면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호흡기 흡기 질환이 야기하는 위험성은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유전적 영향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 며느리

헤린 은 뽑아놓았던 전화코드를 다시 플러그에 꽂으면서 한숨과 함께 머리를 젖는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 외에도 달리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그러나 자그만치 반년이상을 궁리해 왔음을 새삼 떠올리며 한숨을 거듭 찾는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떠나 남편과 시모와의 유대를 터놓고 방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 그녀의 고민은 컸다.

그러나 헤린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이제 정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극한 상황까지 자신의 감정이 치달아 있었으므로 모자간이나 고부간의 윤리문제 따위에 얽매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이러다가... 미치고 말거야...〉

시어머니 홍(洪)여사는 하루 두·세 번씩 새며느리인 헤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 신집살림을 차린 아파트로 입주한 그날부터 일구월심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전 중에 한번 오후에 한번 아들이 퇴근했을 밤에 한번 등 세 번을 했고,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 즉 헤린의 행방을 시시콜콜 알고려고 했다. 전화를 받지 못할 것을 미리 전화해주고 외출했으면 좋았을 게 아니냐고 나무람도 했다. 어쩌다 오전·오후 계속 아파트를 비웠을 때는 「주부가 무슨 긴요한 바깥일이 있기에 온종일 집을 비우냐」고 언성을 높여 꾸중을 했고 시부모가 함께 아파트에 들리기도 했다.

전화내용은 때마다 조금씩 달랐다.

오전 녘에는 무슨 별일이 있었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밤새 별일이 없었냐」는 한결같은 안부 위주였고, 오후에는 시가 친척들의 동정(動靜)과 날씨며 시장 물건값, 아들의 식성이야기 여러 가지 살림지시 등 다양한 내용이었다.

전화가 아니라 마치 옆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더러는 다정했고 더러는 준엄했고 더러는 노련한 취재를 하는 늙은 여기자처럼 자초지종 며느리의 하루생활을 떠보기도 했다.

서로 마주보지 않았을 뿐 헤린은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옆에서 강하게 느껴야 했고 더러는 바로 그녀 옆에 시어머니가 서있는 것으로도 착각했다. 따라서 그녀는 전혀 자유스럽지가 못했다.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도 없었다.

성격이 소심하고 예민한 헤린은 집안 구석구석에 시어머니의 시선이 박혀있어 그녀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 빠지기도 했다. 그녀는 차라리 이런 시집을 살바엔 당초에 시어머니의 소원대로 시가집에 들어가 1년 정도 시집살이를 할 것을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뿐인데 분가(分家)를 시켜줄테니 1년만 식구들과 정(情)도 들일겸 살림도 익힐겸 함께 살자고 하던 것을 헤린이 우겨 처음부터 분가를 했던 터였다.

헤린은 시어머니의 심정을 나름대로 헤아리고는 있었다. 시부모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그나마 시부모 피해 도망치듯 친정 이웃으로 분가한 입장이니, 그러나 자식이 자라면 부모품안을 떠난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왜 인정하려들지 않는가 싶어 헤린은 오히려 답답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어떤 연유였건 간에 헤린은 시어머니의 전화가 싫었다. 임신 3개월로 입덧이 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혐오감은 사뭇 병적으로 진전되어졌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이래서, 고부간은 피차 천병(天病)을 앓는다는 것일까...〉

그 때였다.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린 것은. 헤린은 어깨를 훑칠 솟구치며 자지러지듯 놀라면서 서서히 두 눈을 부라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며 입구를 실그러뜨렸다.

「새아기냐?」

이날따라 유난스레 부드러운 시어머니의 음성이었다.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가슴만 벌름거렸다. 여느 날의 오전 녘처럼 「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하지 않고 짧은 단답 소리를 낸다. 소리라기보다도 놀려 참는 신음에 가까웠다.

「축하한다! 오늘이 우리 새아기 생일이구나! 미역국 끓여먹었

니? 저녁에 너의 아버님과 네 생일축하 하라...」

그러나 시어머니의 음성은 끊어지고 말았다. 숨이 턱에 닿던 헤린이 시어머니의 말 도중에 「제발, 전화 그만 좀 하세요— 뱃속 아기 떨어지겠어요—」하고 고함을 내질렀기 때문이다. 그녀는 발작하듯 소리를 질러놓고 가쁜 숨을 쉬었다. 더 무슨 말인가 해야겠는데 생각은 나지 않고 호흡만 가빠졌던 것이다. 물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내용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얘, 이, 이거 무슨 버르장머리냐? 아, 아기 떨어진다니?」

「전화 그만하시란 말씀예요. 전화벨 울릴 때마다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은 말예요. 어머님이 바라는 뱃속 손자 유산되겠다 말예요—」

헤린은 계속 흥분하여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 듯 숨을 멈추고 있었다. 한참이나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곧 차분히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오냐... 알았다. 전화하지 않오마... 예쁜 며느리 하나 얻어 딸처럼 정들고 싶어 서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모양이다. 미안하다... 너도, 아들 하나 낳아 키워서 장가보내 보렴... 그땐 내 마음도 헤아릴 수 있을게다...」

전화는 끊어졌다.

헤린은 방바닥에 터벌떡 주저앉았다. 가슴이 시원한 것이 아니었다. 더 큰 죄책감과 산더미 같은 불안감이 뒷머리를 난타하며 사정없이 엄습해 들었다. 울음을 터트렸다. 어깨를 심하게 들썩이며 껴끼끼 울어 젖었다. 그렇게 울기만하면 모든 불편한 관계가 편해지고 좋은 방도가 생길 것처럼 그녀는 소리 내어 울어 젖었다. 〈김지연/소설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출생, 진주여고,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76년 「매일신문」신춘문예, 1968년 「현대문학」추천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산 가시네」, 「산 울림」, 「돌바람」, 「야생의 숲」, 「흑색병동」, 「히포크라테스의 연가」, 「어머니의 고리」 등이 있고 역사소설 「논개」가 있다. 한국소설문학상, 남명문학상, 펜문학상, 월탄문학상, 한국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경원대·동덕여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은평문인협회 회장, 소설가협회, 저작권협회 이사로 있다.



항암효과 탁월한 건강 지킴이, 마늘

단군신화에서 곰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약으로 등장해 우리와 더 친숙한 마늘. 최근 '먹는 마늘 환', '마시는 마늘음료'에 이어 일본에서 귀족주사로 인기를 누리던 '마늘주사'까지 국내에 들어와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마늘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

■ 암을 예방한다는 효능 밝혀져

육류 소비증가와 라면의 수프, 조미료, 만두 등 가공식품의 증가로 매년 마늘 소비량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마늘 속에 들어 있는 지용성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데 우리 마늘이 수입산에 비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56배나 크다는 것이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 밝혀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마늘이 암을 예방한다는 효능이 밝혀지면서 건강식품과 의약품의 원료로 점차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 살균 효과 탁월해

마늘에는 당질 13.0%, 단백질 2.45%, 지

질 0.15% 등이 들어 있다. 또 비타민 B·C 등이 다른 채소에 비해 많이 들어 있고, 살균 효과가 탁월한 알리신이 들어 있다.

강력한 살균 효과를 지닌 알리신을 결핵·콜레라·이질·임질균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고 맛을 돋우어주며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도 뛰어나다.

따라서 고기요리에 마늘을 넣어 먹는 우리의 식습관은 과학적이라 할 수 있다.

■ 동맥경화와 비만예방에 좋아

마늘에는 펙틴·피트산 등이 들어 있다. 이들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체내에서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동맥경화증이나 비만을 예방해준다. 또 순환계 질환과 당뇨병을 예방하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억제시켜 준다.

따라서 날 마늘을 하루 2쪽 정도 꾸준히 먹으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

■ 간 해독과 스태미나 증진시켜줘

음식 중에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마늘보다 좋은 것이 없다. 간장의 세포 중에는 소포체와 사립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만들어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한 단백질과 결합하여 피로를 빨리 해소시켜 준다.

또, 마늘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난소와 정소의 기능도 향상시켜 수태율을 높여준다. 마늘이 남성의 정력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마늘에 들어 있는 '리진'이라는 단백질이 정자의 기능을 돕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늘은 여자나 남자에게 모두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다.

■ 마늘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 매일 꾸준히 먹는다

마늘을 매일 꾸준히 먹으면 몸의 저항력을 높여준다. 몇 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스'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쉽게 걸리지 않은 이유도 마늘이 들어 있는 김치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다.

●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마늘은 손의 껍질을 벗겨 버릴 만큼 강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매운 마늘은 공복에 먹게 되면 위벽에 상처가 날 수 있으

므로 식사를 할 때나 식후에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한다. 대개 마늘은 하루에 2~3쪽을 먹는 것이 좋다.

● 가급적 날로 먹는다

마늘은 날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위가 약하거나 날로 먹기가 거북하다면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좋다.

■ 좋은 마늘 고르는 법

토종마늘에는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이 있다.

한지형 마늘은 우리나라 중부내륙지방인 서산, 의성, 단양 등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말한다. 흔히 6쪽 마늘을 일컫는다. 가을에 심으면 뿌리는 뚝이나 썩이 나지 않고 월동한 후 봄부터 자란다.

난지형 마늘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인 남해, 고흥 등지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말한다. 난지형 마늘은 가을에 심어 뿌리와 썩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큰 마늘로 월동하고 봄에는 한지형보다 일찍 수확한다. 저장성은 난지형 마늘보다 한지형 마늘이 좋다.

좋은 마늘은 먼저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며 6쪽인 것을 고르는데, 짜임새가 단단해 보이고 쪽을 감싸고 있는 겉껍질과 속껍질 잘 떨어지지 않는 것, 이물이 묻어있거나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쪽(10쪽 이상)으로 나뉘어 있으며 크기가 작고 벌어진 것,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것, 육질이 노랗게 변질되거나 쭈글쭈글한 것은 좋지 않은 마늘이다. <내용참조 : 농촌진흥청>



얼음 동동 띄운

여름철 별미 '냉국'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리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시원한 국물요리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각종 재료를 넣고 얼음 동동 띄운
여름철 별미 냉국으로 맛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자.

가지냉국

재료> 가지 4개, 마늘 3쪽, 가지양념 (맑은 장국 1큰술, 통깨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콩나물국물 5~6컵, 맑은 장국 1큰술, 소금 1/2큰술, 식초 3큰술, 붉은 고추 1개, 통깨·실파 약간씩



〈만드는 방법〉

- ① 가지는 길게 2등분한 후 6cm 길이로 썰고, 마늘은 얇게 저며썰는다.
- ② 붉은 고추는 씨를 뺀 후 송송 썰고, 실파는 3~4cm 길이로 썰는다.
- ③ 찹통에 김이 오르면 가지와 마늘을 넣

고 20분간 쪄낸다.

④ ③의 가지는 가늘게 찢은 후 마늘과 함께 준비한 가지양념에 무친다.

⑤ 콩나물국물에 맑은 장국과 소금, 식초로 간한 다음 냉동실에 넣어 살얼음이 얼 정도로 얼린 후 ④의 가지와 붉은 고추·실파·통깨를 얹어낸다.

연두부냉국

재료> 연두부 1모, 오이 40g, 송송 썬 청·홍고추 약간씩, 썬갓 약간, 통깨 1/2작은술, 냉국국물 (다시마물 2컵, 간장 1큰술, 소금 약간, 맛살 1/2큰술, 식초 1작은술), 얼음 적당량



〈만드는 방법〉

- ① 오이는 씻은 다음 껍질을 벗겨내고 얇게 채썬다.
- ② 분량의 재료를 섞어 냉국국물을 만든 다음 냉장고에 넣는다.
- ③ 그릇에 얼음을 깔고 연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담는다.
- ④ ③의 연두부 위에 채썬 오이와 송송 썬 청·홍고추, 썬갓을 올린다.
- ⑤ ④에 차게 준비한 냉국국물을 붓고 통깨를 뿌려 낸다.

③ 다시마는 곱게 채썬 다음 물에 담가 짠 맛을 뺀다.

④ 끓는 소금물에 다시마를 넣어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 건져 물기를 뺀다.

⑤ 오이는 곱게 채썰고, 게맛살은 6cm 길이로 가늘게 찢어 준비한다.

⑥ 그릇에 ② ④ ⑤를 함께 담고 차게 준비한 냉국국물을 붓는다.

골뱅이열무냉국

재료> 통조림 골뱅이 150g, 청양고추 1개, 열무김치 200g, 고춧가루 2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물 1컵, 사과식초 2큰술, 양념(다진 마늘·고춧가루 1작은술씩, 고추장 2큰술, 설탕·물엿 1큰술씩, 다진 대파 2큰술)

〈만드는 방법〉

- ① 골뱅이는 체에 밭쳐 물기를 빼고, 청양고추는 잘게 다진다.
- ② 양념 재료를 잘 섞은 후 골뱅이를 넣어 버무린다.
- ③ 볼에 열무김치와 국물을 담고 고춧가루, 청양고추, 마늘, 물, 사과식초를 넣고 고루 섞은 후 골뱅이를 올린다.



다시마채냉국

재료> 무 1~5개, 다시마 80g, 오이 1/3개, 소금·설탕 1/2작은술씩, 식초 1큰술, 게맛살 1/2쪽, 냉국국물 (다시마물 2컵, 무즙 1/4컵, 송송 썬 실파 1큰술, 청주 1큰술, 고추냉이 1작은술, 간장 1큰술, 소금 약간, 얼음 적당량)



〈만드는 방법〉

- ① 분량의 재료를 섞어 냉국국물을 만든 다음 냉장고에 넣어둔다.
- ② 무는 껍질을 벗긴 다음 곱게 채썰어 소금과 설탕, 식초를 뿌려 10분 정도 둔다.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관련 정보 10가지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많아져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할 자동차 관련 정보 10개를 선정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사고예방관련 정보

1. 차량 안전점검을 받은 후 출발하라

장거리 운행시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보험회사 및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증,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함은 물론 가까운 정비공장 등을 방문하여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점검한다.

2. 졸음 운전시 휴식 또는 교대 운전하라

장거리 운전시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음주운전 다음으로 위험하므로 일정 시간마다(2시간) 휴식 후 운전하거나, 교대운전, 운전 전날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에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운전 중 DMB시청 및 휴대전화 통화를 꾀하라

운전 중 다른 기기를 조작 또는 주시(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 중에는 휴대폰 통화는 물론 DMB 시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후 조치관련 정보

4.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확대를 예방하라

운전자는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방전 등의 경우에, 손보사가 제공하고 있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 및 추가사고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5. 車대車 사고발생시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라

통상 쌍방과실 사고시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車대車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과실비율의 다름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지연을 방지하

기 위하여 자기회사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보험회사간에 상호협정*이 체결됐다.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07.4월)

※ 우선보험회사의 결정

- i) 차대차 사고시 각 차량소유자의 가입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
- ii) 대인/대물은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
- iii)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물)를 최초로 충돌한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
- iv) iii)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는 동승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

6.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하다.

• 보상내용 : 1인당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
*사망(최고 1억원), 부상(1급 2,000만원, 후유장해(1급 1억원))

• 보상청구방법 : 11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교보AXA자보(선정자격 : 설립 후 3년 경과)

7.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자손사고 및 자기 차량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계약관련 정보

8. 본인 소유 차량을 타인이 운전할 경우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라

대부분의 차량은 운전자 제한형(가족 또는 부부로 제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를 대비하여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한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9. 본인이 타인차량 운전시 대비 수단으로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라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보상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대인Ⅱ, 대물, 자손)이 가능하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입(연간 보험료 7~8천원)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10. 렌터카 이용시 자기차량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불법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를 빌릴 때는 렌터카를 나타내는 번호판의 '허'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는 대인 및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되어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는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상속세, 신고 후에도 꾸준히 관리된다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무심코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금융재산 조 회자료,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 사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해 세금까지 추징당했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 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 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 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 금이나 은행 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 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 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 여세를 물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 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

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잠깐!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은? ◆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 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생명보험금, 퇴직금 및 신탁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 상속재산 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 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 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용출처 : 국세청〉



가열된 식품에서 발생하는 ‘퓨란’이란?

“가열”이란 식품 가공 기술이 우리의 식생활 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열된 식품에서 발생하는 미량의 유해한 물질인 ‘퓨란’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 퓨란이 무엇인가요?

퓨란은 식품을 열처리 또는 조리하는 중에 생성되는 무 색의 휘발성액체인 화합물이다. 식품 중 퓨란은 미량의 화 합물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식품에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게 되었다.

■ 퓨란은 어떻게 생성되나요?

퓨란은 식품제조과정 중 아미노산이나 탄수화물, 비타 민C, 불포화지방산 등이 가열조리 될 때 주로 생성된다.

하지만, 퓨란은 휘발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열을 가 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일부 생성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휘발되므로 식품에 남아 있는 양은 매우 적어 최종 적인 제품에서는 문제될 수준이 아니다.

■ 퓨란은 어떤 식품에 있을까요?

퓨란은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공정 중에 생 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증발하여 식품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병조림이나 통조림 식품의 경우 밀봉된 상태로 가열과 포장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가공조건에서 퓨란이 남아있을 수 있다.

■ 퓨란은 유해한 물질인가요?

현재까지 퓨란이 인체발암성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연구결과는 없다. 식약청에서는 시중에 유통에 유통되고

있는 퓨란 검출 가능성이 높은 분유·이유식류, 통조림식 품, 커피류 등에 함유된 퓨란의 양을 검사한 결과, 검출된 양은 미국·독일·스위스 등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커피의 경우 뜨거운 물에 타 마시는 기호성 식품이며 퓨 란은 고휘발성의 특성이 있어서 섭취시에는 60~90%가 감소하게 되므로 실제 잔류량은 측정치보다 매우 낮은 것 으로 예상되고 있어 위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 려져 있다.

■ 퓨란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퓨란은 휘발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포트와 같은 개봉된 용기에서 식품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쉽게 증발하므로, 개 봉 직후의 캔 및 병 포장 식품 중의 퓨란의 양보다는 훨씬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병·통조림 식품이나 밀폐용기에 포장된 식품의 경우에는 개봉하여 즉시 섭취하지 않고 잠시 두었다가 섭 취하면 퓨란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식약청에서 조사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 되는 제품의 퓨란의 양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 단하고 있으며, 그 섭취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자료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우주의 사투리

고은 著 / 민음사



가난한 시절 고모의 등에 업혀 하늘의 별을 먹을 것으로 노래하던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 어린아이가 고회를 넘기면서 뒤돌아보니 민족의 통일을 밝히는 힘찬 산맥이 되어 있었다. 그가 시인 고은 선생이다. 『우주의 사투리』는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시인 고은 선생의 생각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글이다. 거기에는 고은 선생이 '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 사연들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세계의 대학에서 강연한 강연록까지 들어있다. 고은 선생은 그의 문학행위가 폐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 자신은 전통의 자식이 아니라 폐허의 자식인지도 모른다고, 제목이 '우주의 사투리'인 것은 시를 바라보는 고은의 태도에서 유래한다. 고은 선생은 시를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우주의 한 방언(方言)"이라고 하고 있다. 고은 선생이 말한다. "열여덟 살 때나 지금이나 나의 북극성은 시다." 나의 북극성은 무엇일까?

사친- 조선선비, 어머니를 그리다

김만중 외 著, 전승열 엮음 / 서해문집



이 책은 조선 후기, 특히 17-18세기 선비들이 쓴 어머니의 행장 등을 번역한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에는 행장이라는 문체로 남아 있는 글들이 수천 편이 넘는데 어머니에 대한 행장은 30여 편에 불과하다. 그 중 20여 편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14편을 뽑았다. 행장이란 한 사람의 일생을 요약 서술해 놓은 라이프 스토리이다. 홀로 되신 어머니를 위

로하기 위하여 서포 김만중이 <구운몽>을 지어 바친 것으로 유명한 해평 윤씨 부인, 한글로 된 최초의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의 저자인 안동 장씨 부인, 싹바느질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유득공의 어머니 남양 홍씨 등 사려 깊은 어머니상의 모음집이다. 선비들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할 어머니상은 어떤 것일까 하는 호기심에서 이 책을 엮은 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성들의 사모곡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찬실 아줌마의 가구 찾기

박미라 글, 김종석 그림 / 바람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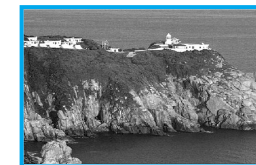
결혼 시기를 놓친 아줌마가 혼자 지낸다. 아줌마의 이름은 이찬실이다. 이찬실 아줌마는 얼마 전까지는 혼자서 아니었다. 어머니와 찬실 아줌마 둘이 친구처럼 지내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 집에서 값이 비싼 새 물건들로 둘러싸인 속에서 행복하게 지낼 것을 꿈꾼다. 마침내 새 집을 장만하고 장롱이며 침대 등 가구를 바꾸고 새로운 기분으로 지내려 하지만 오히려 낯선 곳에 홀로 떨어져 온 느낌으로 힘들어한다. 마침내 어머니와 함께 지낼 적에 썼던, 이제는 되찾기도 쉽지 않게 된 장롱과 책장 따위를 찾아 나서지만 쉽지 않다. '혼자'인 것의 두려움이 어머니와 함께 썼던 손에 익은 물건을 되찾고 싶게 한 것이다. 혼자 사는 듯 보이되 실상은 알게 모르게 어물려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다. 한편, 책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손때 묻은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새 것만을 고집하는 요즘의 어린이들에게 일독을 권할만한 책이다.



'한여름 밤의 꿈' 같은 등대 여행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등대가 손꼽혔다. 아마도 등대의 역사성과 낭만성, 그리고 풍광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한여름 밤의 꿈'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올 여름 '등대 여행'의 묘미를 만끽해보자.

100년 동안 남해안 뱃길 밝혀준 거문도등대 전남 여수시



거문도등대는 남해안 최초의 등대로써 1905년 4월 12일 세워진 뒤 지난 100년 동안 남해안의 뱃길을 밝혀오고 있으며 해양유물로 보존되고 있다. 거문도는 섬 일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있는 곳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거문도등대는 거문도를 찾는 관광객이 여행하는 필수 코스이다.

여객선 선착장이 있는 거문리에서 등대까지 걸어서 약 1시간 남짓 걸리는데 삼호교를 거쳐 유림해수욕장을 벗어나면 물이 넘나드는 "무늬이"를 지나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바다의 기암절벽을 낀 1.2km 거리의 산책로가 펼쳐지며 길 양쪽으로 길게 들어선 동백나무 숲길을 걷다보면 세상 모든 상념을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등대 절벽 끝에는 관광객들이 바다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관백정이 있다.

북녘 땅의 금강산까지 아스라이 보이는 고성등대 강원도 고성군



대진등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유인등대이다. 이 등대는 원래 어로한 계선을 표시하는 도등(導燈)으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1월에 처음으로 불을 밝혔다. 그러다 어로한계선이 북쪽 5.5km로 상향조정된 1993년부터는 도등 역할을 마무리하고 일반등대로 전환됐다. 12초마다 1회씩 불빛이 깜박거리는 대

진등대의 불빛은 20마일(37km) 밖의 해상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발 61m의 등탑에 올라서면, 가까운 대진항과 화진포는 물론이고 멀리 북녘 땅의 금강산까지도 아스라이 보인다. 대진항에서 자동차 10여 분만 달리면 남한 땅의 북쪽 끝인 통일전망대에 도착한다. 그리고 대진항의 지척에는 자연풍광이 수려하고 물빛도 깨끗한 석호인 화진포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대진항과 화진포 인근에는 명파, 마차진, 대진, 초도, 화진포 등의 해수욕장이 곳곳에 펼쳐져 있어서 피서지로도 안성맞춤이다.

여름을 밝히고 한낮의 낭만을 살리는 영도 등대 부산 영도구



부산을 찾는 여행객들 중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숨은 보배로 평가받는 등대를 만나보고 싶다면 먼저 영도등대부터 찾아가 본다. 영도등대는 태종대 유원지를 거쳐야만 다가가 수 있다. 태종대(국가 지정 명승문화재 제17호)는 신라 때 태종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한 이후 찾아와서 유람을 했다는 전설로 그 같은 이름이 붙은 해안경승지로 순환관광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또한 남해가 만나는 곳으로 해운대구 송정동에 송정등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비롯해서 남구에 오륙도등대, 영도구에 영도등대, 강서구 가덕도 대항동에 가덕도등대 등 기념비적인 등대가 여러 개 자리 잡고 있다. 등대와 등대 사이에는 여름철에 피서를 즐기기에 좋은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등 있어서 전국 각지의 여행객들을 불러 모은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을 다녀와서

이 금 속(경기도지부 회원)

6월 11일 수원에서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충주 장안농장-

도착하여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야트막한 언덕을 오르니 밤나무 향기가 코끝 가득 담겨온다. 소나무보다 더 많은 산소를 내보낸다는 밤나무 숲을 걸으며 농장 주인의 설명이 이어진다.

이곳에는 100가지 이상의 많은 채소들이 잡초 속에 자라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잡초들과 싸워서 이기면 28,000평 넓은 야산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점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연히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여 그 속에 채소들이 자라고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농부의 자긍심이 존경스러워진다.

친환경마을은 절대로 농약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가도 가도 야생화와 질경이가 널려있다. 언덕 마루에 핀 하얀 당귀꽃이 유난히 돋보인다. 훌쩍 옷자란 섬자리 꽃을 자나니 누런 한우들이 방목되고 있다. “이리와라!” 주인이 부르니 “움머어~~” 알아듣는 듯 반갑게 뛰어온다. 구입한 이래 3년 동안 한 번도 사료를 얹었다고 한다. 물론 사료에는 항생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란단.

잠시 쉬는 공간에 이르기엔 넉넉한 벤치와 지하수 물이 시원하다. 그런 공간마다 아름다운 시와 성경 구절이 눈길을 끈다. 농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길목마다 이름이 붙여있는데 나이트인 “황금이 길과 시”라는 제목의 길에 눈길이 간

다. 참 아름다운 제목이다. 친환경마을 주민들은 채소만 먹는 까닭에 변비환자가 한 분도 없었다. 그래서 붙여진 화장실 이름이 “늘시원”이라고 설명하신다. 한바탕 까르르 웃음꽃을 피웠다.

제법 큰 공방 안에는 백여 가지가 넘는 아름다운 꽃들이 눈길을 끌고 놓지 않는다. 잎사귀가 뽀뽀하고 억세서 붙어 있는 머느리말싹개... 아- 어쩔 그 억센 잎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분홍꽃이 피어났을까...내 모습은 비록 그렇게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 나오는 언어와 품위가 저렇게 아름답고 싶다.

수많은 야생화를 하나하나 보며 우리나라 산야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야생화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때로는 무심히, 때로는 그냥 밟고 지나쳐 버렸던 작은 꽃잎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는 표현만으로는 창조하신 분께 대한 예의가 아닌 듯싶다.

주인의 마음만큼이나 넉넉한 접시에 수북이 쌓인 친환경 야채들... 열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쌈들이 씹을 때 마다, 마다의 향을 풍기며 입속에서 아삭아삭 씹힌다. 때론 씹쌀하게, 때론 상큼하게...시골 특유의 맛이 확 풍기는 된장찌개와 부드럽게 무쳐놓은 시금치나물. 무항생 돼지고기라고 힘주어 설명하는 주인의 목소리까지 반찬삼아 아예 저녁까지 챙겨먹었다. 든든히...

그런 말들은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다. 우리의 농촌을 살려야겠다고...■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서울특별시지부

‘난치병 환우돕기 자선바자회’ 개최

강남구지회(회장: 곽한옥)는 6월 13일~17일 회원 30여명이 영등포 롯데백화점에서 난치병 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과 함께 백화점을 찾은 수많은 고객들에게 기아대책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나눔의 가치를 함양시키고자 ‘난치병 환우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지부

‘2007 찾아가는 학부모 발명교실’ 개최

시지부(회장: 김기묘)는 6월 12일

본회 강의실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발명꿈나무 양성 및 발명가족 활성화를 위한 ‘2007 찾아가는 학부모 발명교실’을 개최했다.

강사로 초빙된 발명진흥원 김주병 국장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의식변화와 학부모의 생활 속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자녀들의 과학적 잠재력을 길러줘 과학발전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버소비자 교육 실시

지난 6월 26일 공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7일에는 남신정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100여분을 대상으로 각각 실버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들만을 노린 사기 상술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소비자 피해사례 및 사례별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대구광역시지부

소비자교육 및 봉사활동

시지부(회장: 손기순)는 지난 6월 1일~2일 대구컨벤션센터 엑스포에서 열린 ‘2007 도농 상생한마당’ 잔치에 회원 10명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2일 아양중학교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휴대폰의 과다 사용의 위험성 및 경제적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 체험 및 직거래

지난 6월 15일 회원 44명이 영덕에 위치한 친환경 키토산 토마토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친환경 농업에 의한

생산과정을 본 후 농협 선별장을 방문해 토마토 선별 및 출하과정을 직접 보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신,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다.



대구 경북 혁신 대제전 참가

6월 30일 국제보상공원 화합의장에서 혁신도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며 열린 '대구 경북 혁신 대제전'에 회원들이 참여해 수지침 체험장을 열고, 시민들에게 친환경수세미를 나눠주며 건강증진 및 환경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인천광역시지부

'인천사랑 우리가 지켜요' 개최

시지부(회장: 한혜자)는 6월 9일 인천시내 박물관, 유적지 등에서 '인천사랑 우리가 지켜요' 행사를 개최했다. 초등학교와 학부모 8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박물관과 유적지를 함께 다니며 가족애와 더불어 애乡심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양성평등 및 생활개선 캠페인

서구지회(회장: 이민자)는 지난 6월 8일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전개한 '양성평등 및 생활개선 주민홍보를 위한 캠페인'에 회원 4명이 참여해 석남동 거북시장에서 강남시장까지 이동하며 주민들에게 부채와 홍보 팸플릿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11일에는 회원 10명이 석남동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300여분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30분에게는 도시락을 전달해 드렸고, 20일에는 석남동 강남시장에서 도시철도 2호선 서구구간 지중화 추진 캠페인 및 서명운동에 회원 2명이 참여했다.

여름철 수해복구 대책 홍보활동 및 시민재난 안전교육 참석

계양구지회(회장: 고영숙)는 지난

6월 4일 작전서운동 체육공원에서 회원 10명이 여름철 수해복구 대책 홍보활동을 실시했고, 8일 계양구청광장에서 열린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 및 환경정비의 날' 행사에 회원 15명이 참석했다.

또한 15일 회원 9명이 계양구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재난 안전교육에 참석해 재난구호 및 집단구호과정, 재난현장 응급처치과정 등을 배우고 수료증을 받았다.

웃음치료 및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부평구지회(회장: 이순애)는 6월 13일, 20일, 27일 회원 3명이 작전동 연아메디칼병원을 찾아가 몸과 마음이 지친 환우들을 위한 웃음치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20일에는 회원 9명이 전라남도 무주군 매실농장을 찾아가 매실따기 및 직거래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자연보호 캠페인

강화군지회(회장: 강혜옥)는 회원 12명이 강화읍 남산주변에서 쓰레기줍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해 쓰레기저감화 실천 및 자연보호에 앞장섰다.

광주광역시지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교육

최근 한미 FTA체결 등 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지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지난 5월 30일 광주 농협 문흥지점 3층 강당에서 일반 시민 및 회원 90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며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및 축산농가 견학

6월 8일 나주시 영산포 공판장 1층 강의실에서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축산 우수 농가 및 도축장을 방문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축산물등급판

정소 고경철 호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 및 유통과정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회원 45명이 육류가공 공장을 방문해 위생적이고 간편한 방식으로 품질 좋은 육류를 생산하고 있음을 직접 보면서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있었고 홍보 및 애용에 앞장서기로 했다.



우리 축산물 애용 및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가두 캠페인

6월 8일 축산물 관련 교육 후 회원 40명이 나주시내 공공터미널 근처 상가에서 국내 축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의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의식 제고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우리 농산물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6월 18일 지부사무실에서 주부 및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운영성 농관원 품질관리부장에게 국내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실태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정 및 유통체계의 어려움 등을 듣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가졌다.



대전광역시지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환원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방안 토론회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6월 26일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대형유통점의 사회 환원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방안, 현지법인화 추진,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이진옥 국장이 주제발제를 담당했고, 충남대학교 정용길 학장, 대전일보 김재근 편집부국장,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 이광진 사무처장, 전국상인연합회 윤치운 팀장,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점 김재석 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쇠고기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실태조사

지난 6월 8일~15일 소비자 모니터 10명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식당 80곳을 중심으로 식육 원산지표시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버서포터즈를 활용한 순회 노인 소비자 교육

6월 25일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28일 도마동 하늘교회에서 노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실버서포터즈를 활용해 노인

100여분을 대상으로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실버 전문가답게 방문판매 피해사례를 인형극으로 공연하는 등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울산광역시지부

환경한마당 홍보 부스 운영

시지부(회장: 박보봉)에는 지난 6월 6일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제12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 한마당'을 개최했다.

환경오염을 극복한 생태도시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홍보 부스를 마련해 재활용품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및 울산지역 시민 환경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농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및 도시 소비자 농촌 체험

6월 9일 회원 45명이 상북면 대리 오리농업단지에서 상북 무농약 오리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 간 상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된 '도·농 만남의 날' 행사 참여했고, 29일에는 회원 45명이 울주군에 위치한 유정난 공장, 친환경 배 마을, 녹색농촌체험장을 찾아가 농촌체험 기회를 가짐으로써 도·농간 거리감 해소와 함께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에 동참하기로 했다.



청소년 환경탐사대 탐사활동

6월 9일 청소년환경탐사대 지도교사 및 대원들 45명이 태화강~척과천 주변에서 시료 채취 및 수질조사 활동을 펼쳤으며, 들꽃합습원에서 식물

채집으로 체험 및 견학을 실시했다.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정화활동

6월 23일 삼호초등학교 학생 가족 40여명과 함께 태화강 주변에서 생활쓰레기 줍기 등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정화활동'을 실시해 가족애를 형성하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경기도지부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도지부(회장: 박명자)는 6월 11일 회원 45명이 충주 소재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장인 장안농원을 방문해 넓은 청정 농원에서 자라는 채소 등 농산

물 재배 과정을 직접 보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

6월 2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각 지회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경기지원 이상무 전문 강사로부터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들은 후 활동 중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처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생명보험에 관한 경제교육 실시

6월 2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아주대학교 경

제학과 손민 교수는 달라지는 시대에 따른 생명보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선택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 축산물 애용 및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가두 캠페인

6월 29일 수원역 광장 앞에서 회원 30여명이 우리 축산물 보호의 기본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원산지표시 확인 및 우리 축산물 애용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2007년도 일반소비자교육 실시

수원시지회(회장: 이현숙)는 6월 2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소비자 기본법 및 올바른 소비 습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2007년 소비자정보전시회' 개최

의왕시지회(회장: 신동화)에서는 지난 5월 30분~6월 1일 3일간 의왕

시 여성회관 1층 로비에서 '소비자정보전시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각종 소비자 고발 및 피해구제 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 패널과 국산·수입 농산물 비교 전시 시료 등을 전시해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했다.



봉사활동

연천군지회(회장: 장애정)는 6월 13일과 27일 회원 15명이 관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15세대에 빵과 밀반찬 만들어 전달하고 목욕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2007년도 소비자 정책 워크숍' 참석

고양시지회(회장: 이순려)에서는

지난 6월 7일~8일 경기도 제2청에서 주관하고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2007년 소비자 정책 워크숍'에 8개 지회장들이 참석해 소비자 기본법 변경내용과 PL법 시행 및 그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일일 알뜰매장 운영 및 봉사활동

과천시지회(회장: 양혜숙)는 회장과 회원 10명이 매주 화요일 부림동 주부교실 알뜰매장 앞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으며, 매주 셋째 수요일마다 구세군실비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조사 및 개인서비스 요금조사

광명시지회(회장: 장대숙)에서는 명예 물가조사요원 13명이 매주 1,3 번째 수요일마다 주요생활품 소비자 가격 조사 및 유통업체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및 가격파괴 서비스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지부

'성매매 시민 감시단 발대식' 참석

도지부(회장: 김해광)에서는 지난 6월 5일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열린 성매매 없는 사회만들기 시민감시단 발대식에 회원 120여명이 참석해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예방 및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 밝은 사회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장애인 돕기 봉사활동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는 장애



인과 함께 회원 30명이 정선 레이바이크를 찾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위로 격려했다.

충청북도지부

봉사활동

충주시지회(회장: 이상숙)는 6월 10일~25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 직원과 회원 20명이 함께 관내 거주하는 독거가정을 방문해 도배 및 전기 공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제천시지회(회장: 장태봉)는 6월 20일 회원 25명이 성보나 벤틀라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주변 정리를 비롯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노인 공경의 정신을 실천했다.

음성군지회(회장: 김영옥)는 6월 9일 체육관에서 열린 여성 감골 체육대회에 회원 20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27일에는 회원 30명이 군내 위치한 과수원을 찾아가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진천군지회(회장: 지미순)는 6월 10일 회원 35명이 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열어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하며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드렸다.

충청남도지부

'전국주부교실 충남지도자대회' 개최

도지부(회장: 조춘자)에서는 지난 6월 28일 공주경찰서 대강당에서 16개 시·군 지회 임원 및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주부교실 충남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으로 밝은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자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 참석한 지도자 모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며, 더 나아가 헌신적으로 지역 내 여성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지역 출산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 경제활동 참여 만족도 토론회

출산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참여 만족도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지부는

지난 6월 28일 공주경찰서 대강당에서 주부 및 회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양대학교 정진현 교수와 송영숙(前 대전지방노동청 과장)님이 주제발제와 함께 토론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육아문제를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가정용 의료기기 과대광고 피해 예방과 올바른 사용 교육

천안시지회(회장: 박성자)에서는 6월 26일 주부 및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용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등 구입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사



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소·농이 함께하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소비촉진 정보화 교육

6월 28일 공주경찰서 대강당에서 주부 및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국립농산물 이광구 소장은 가공식품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농산물로 차려진 밥상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음과 이를 위해선 주부들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라북도지부

축산물 홍보 및 가두 캠페인

도지부(회장: 최원자)에서는 지난 6월 1일 회원 100여명이 남문을 출발해 중부경찰서, 전북도청 광장 일

대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며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우리 축산물 애용을 호소했다.

알뜰바자회 개최 및 봉사활동

6월 1일 회원 100여명이 구 전북도청 제1청사 주차장 광장에서 알뜰바자회를 열어 각 가정에서 불필요한 물건이나 소비제품을 서로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막고 아나바다 운동에 동참했다.

5일에는 회원 10명이 자매결연을 맺은 전주시 공덕마을을 찾아가 복숭아 나무 분양, 열매 숙아주기 등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단오맞이 경로위안 잔치

고창군지회는 6월 19일 단오 날을 맞아 회원 12명이 유치원생 30명과 함께 봉산리에 위치한 고창효도의 집을 찾아가 창포로 머리감기, 투호놀이,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노

인들을 위로했다.



봉사활동

익산시지회는 6월 18일 회원 14명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의경들의 고충을 상담하며 위로 격려했다.

김제시지회는 6월 26일 회원 10명이 복남면에 위치한 평강의 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완주군지회는 6월 5일 회원 5명이 군내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도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읍시지회는 6월 2일 회원 10명이 입암면 소재 온누리 양로원을 방문해 간식 제공과 함께 말벗해드리기,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전라남도지부

환경사랑교육

도지부(회장: 이승자)에서는 6월 7일 영암군여성회관에서 주부 및 회원 250명을 대상으로 환경사랑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정진영 한국유기농협 회장은 '환경·생태계 보호와 유기농'이란 주제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애용 등 친환경적 삶의 태도 변화가 건강한 삶의 첫 걸음이며, 자연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및 직거래

도지부 회원 45명은 지난 6월 8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기 위해 영암군내 무농약 파프리카 재배 농가, 배즙 가공자, 새싹 재배공장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및 가공장을 견학하고 직거래를 실시했다.

제12회 환경그림그리기대회

6월 16일 나주 남산공원에서 초등학생 1,500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환경그림그리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염된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보호하는 환경보전 실천의식 확산을 위해 물 사랑, 자연 사랑, 에너지 사랑, 미래의 환경 등 환경사랑 및 환경보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76명의 학생이 수상했고, 대상은 곡성중앙초등학교 4학년 김재의 학생이 수상했다.



'우리 축산물 신뢰도 확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

6월 26일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부 및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정희종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친환경 우리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 및 안전성 인식

제고'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임원 및 회원 50명이 나주 남문광장에서 나주 터미널까지 '축산물 등급표시·식육판매 표시사항 꼭 확인합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배포하며 친환경 축산물 신뢰도 확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축산농가 및 가공장 현장 견학

6월 27일 회원 45명이 나주시에 위치한 닭, 한우, 오리 사육 농가를 방문해 생산 및 가공 과정을 직접 보면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직거래를 통해 신선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홍보 및 고효율제품 구매 촉진 캠페인

6월 28일 강진군여성회관에서 주부 및 일반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이란 주제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에너

지개발 현황 및 생활환경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등을 내용으로 환경사랑 교육을 실시했고, 에너지관리공단 박근호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량과 환경과의 연관성 등을 내용으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이후 회원 50명이 강진군 5일장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임직원, 강진군청 임직원과 함께 새롭게 변하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라벨 홍보 및 1등급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사랑을 유도했다.



‘웃음 발견을 위한 행복 여행’ 교육
광양시지회(회장: 신행숙)에서는 지난 6월 1일 광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대한웃음문화연구소 남영안 소장은 ‘웃음 발견을 위한 행복 여행’이란 주제로 위기에

처한 가족 관계의 개선을 위해선 인격 존중을 기본으로 충분한 대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해 웃음을 되찾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봉사활동
6월 1일 회원 30명이 자매결연된 광양 진월면 매실 재배 농가를 방문해 수확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보탬이 되었고, 회원 간 친목도 도모할 수 있었다.

8일, 15일, 22일, 29일 회원 20명이 한 조가 되어 4일 동안 총 80명이 장애인 복지시설인 한국장애인 문화협회를 찾아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배움의 뜻을 키우고 있는 장애인들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모시꽃 공예’를 지도하고,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에너지절약교육 실시
여수시지회(회장: 이안자)는 여수 중앙유치원에서 유치원생 90명을 대

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냉방기 사용시 적정 온도 조절법을 비롯해 대기전력 줄이기 등을 내용으로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했다.

‘영산강 살리기’ 환경교육 실시
담양군지회(회장: 김향자)는 6월 5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일반시민 및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목포 환경과 건강연구소의 서한태 이사장은 ‘영산강 살리기’를 주제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친환경 농업지역 조성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환경정화 활동
고흥군지회(회장: 박민자)는 6월 18일 회원 50명이 고흥읍 일대 및 봉황산 산책로에서, **곡성군지회**(회장: 이미숙)는 6월 22일 회원 40명이 섬진강과 압록유원지 일대에서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고장, 다시 찾



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쓰레기 줍기 등 주변 정화활동으로 환경사랑을 실천했다.

경상북도지부

초고속인터넷 이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

도지부(회장: 이인호)에서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지난 6월 15일 청년회의소에서 ‘초고속인터넷 이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원 및 일반 시민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 금오공대 컴퓨터공학부 오득환 교수와 한국소비자원 황정선 책임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관련 당국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소비자 스스로도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해야함을 당부했다.



장학금 전달
경주시지회(회장: 박추자)는 6월 19일 안갑읍 계림고등학교를 찾아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모범생 1명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봉사활동 및 자연정화활동
구미시지회(회장: 한로미)는 6월 18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2007 ‘아름다운 봉사단’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어르신을 위한 사랑 실천에 앞장선 공로로 구미시 의장상을 수상했다.



포항시지회(회장: 김귀련)는 6월 4일 회원 8명이 청솔웨딩뷔페에서 가진 이주여성 대모(代母) 결연행사에 참여해 후원금을 전달하며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20일에는 회원 7명이 햇빛마을, 요셉의 집을 방문해 떡과 다과를 대접하며 건강지도 및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드렸다.

상주시지회(회장: 육순단)는 6월

13일 회원 7명이 현충탑 부근 남산길에서 풀 뽑기, 쓰레기줍기 등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영주시지회(회장: 정순옥)는 6월 20일 회원 6명이 ‘만남의 집’을 방문해 무료급식 도우미 봉사활동을, 21에는 회원 8명이 노인요양원인 ‘자비동산’을 방문해 식사 및 목욕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화군지회(회장: 이유정)는 회원 5명이 군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7가정을 방문해 생필품 및 선물을 전달하며 문화적 이질감을 비롯해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자녀교육 등의 어려운 사항들을 상담하며 위로 격려했다. 10일에는 회원 10명이 독거노인 3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 주변 청소와 함께 쓸쓸한 노년을 위로해드렸다.

군위군지회(회장: 김은주)는 6월 7일 군위군 둔치 운동장에서 개최된 환경의 날 군청 행사에 회원 20명이 참석해 사직동까지 휴지 줍기 등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편, 6월 14일 김은주 회장은 칠곡군에 위치한 노인차지대학에서 노인 80여분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를 노리는 상술 피해 예방 요령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회원 10명이 교육진행 보조로 활동했다.

울진군지회(회장: 김희자)는 6월 6일과 25일 회원 전원이 군내에서 열린 현충일 기념행사에 참여해 행사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상남도지부

제 27회 주부대학 및 제 13회 부부대학 개강식

도지부(회장: 이인숙)는 6월 5일 주부교실 강당에서 9월 18일까지 운영할 주부대학 및 부부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입생을 비롯해 황철곤 마산시장, 윤성혜 경상남도 여성정책과장 등 내외 귀빈들 280여명이 참석해 평생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배움의 뜻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견학 및 직거래

6월 27일 회원 45명이 친환경인증 유기농장과 친환경인증 농산물 학교

급식 물류센터를 방문해 유기농산물 재배 과정을 직접 보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고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

정기총회 및 월례회

김해시지회(회장: 김봉필)는 6월 30일 부원동에 위치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월례회를 가졌다.

김해교육청이 후원한 이날 총회에는 '2006년 사업실적 및 2007년도 사업계획'을 비롯해 한마음대회 등 주요행사 개최협의 및 주부교실 개강준비, 단체 활성화 방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토의를 벌였고 회원들이 주부교실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기로 했다.



자연정화활동

밀양시지회(회장: 김영숙)는 6월 4일 밀양 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원 40

명을 대상으로 깨끗한 공중 화장실 관리 유지를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해 깨끗한 화장실 문화 확립이 아름다운 도시 형성의 기본임을 강조했고,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11일에는 회원 30명이 밀양 시청 일대에서 분기별 쓰레기 줍기 정화활동에 참여해 '아름다운 밀양, 깨끗한 밀양 가꾸기' 운동에 동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

도지부(회장: 김영희)에서는 지난 6월 22일 회원 20명이 제주시 민속옥 일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원산지표시 홍보와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줄 것과 소비자들에게는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 확인을 습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부교실게시판

주부대학 · 주부대학원 방학

본회(중앙회)가 주부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6개월 과정의 주부대학과 1년 과정의 주부대학원이 다음과 같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 주부대학 : -방학기간 : 07. 7. 25 ~ 9. 2
-개강일 : 07. 9. 3(월) 10:30
- 주부대학원 : -방학기간 : 07. 7. 26 ~ 9. 5
-개강일 : 07. 9. 6(목) 10:30
- 등산반 : 07. 7. 26 ~ 9. 4
- 합창반 : 07. 7. 23 ~ 9. 2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02)2273-2485 · 6300, (02)2266-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적 성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

수상을 축하합니다

제12회 여성주간을 맞아 7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삶을 풍요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12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에 앞장서 온 공로로 본회가 운영하고 있는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보섭 관장과 전라남도지부 이송자 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정순옥 경북 영주시지회 회장이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받았다.